

## 여성 청년의 지역 이주 의향: 생애 전략으로서의 모빌리티와 젠더 효과

김이선\*

### 초 록

이 연구는 청년의 지역 간 주거 이동을 이주 의향의 젠더 차이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청년 세대의 주거지 이동은 지역 인구문제의 핵심 주제인 동시에, 청년들의 생애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청년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다뤄져 왔으며, 이러한 논의에서 청년 집단 내 젠더 차이는 여러 변인 중의 하나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는 오늘날 청년들은 주거지 이동을 일종의 생애 전략으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경제 요인이나 지역 환경 요인 외에도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미래 전망과 실현 가능성 등의 요인에 따라 이주 의향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이들의 주거 이동을 분석하였다. 특히 청년의 생애과정 이행에는 성별에 따른 제약과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젠더 차이가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효과에도 드러날 것으로 보았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청년들의 이주 의향은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원 연결망, 미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제약 인식 등 자신의 생애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의 동거, 사회적 지원 연결망, 번아웃 경험은 청년의 성별에 따라 상반된 효과를 보였는데, 현재 삶의 제약을 탈피하기 위한 생애 전략으로서의 의미가 여성 청년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제어 : 청년 인구이동, 생애 전략, 이주 의향, 모빌리티, 성별 효과

---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BK21Four 연구교수(eesuning@gmail.com)

## I. 서론

이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다뤄지는 지역 인구문제의 맥락 속에서, 청년 인구의 이동을 젠더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인구 위기 담론은 저출산고령화의 차원과 지역 인구문제의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인구 변동이 출생과 사망이라는 자연적 요인과 인구이동이라는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바(권태환·김두섭, 2015), 대체로 저출산 문제는 혼인율과 출산율의 저하를 중심으로 논의됐고, 지역 인구문제는 이촌향도의 인구 유출이라는 이동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돼왔다.

그러나 2018년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집계되고,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지면서<sup>1)</sup> 그간의 인구정책적 관점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크게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을 ‘가임인구’로 호명하는 전통적인 접근법으로는 초저출생 시대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은 오랫동안 제기되어왔으나(가령 배은경, 2010; 구은정, 2019), 정책 담론의 층위까지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이다. 즉 근래의 인구 정책 담론은 가임여성 인구의 출산을 제고하는 해결방안과 더불어, 인구이동, 인구 재배치, 관계인구, 생활인구와 같은 개념이 연계되어 인구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진행되고 있다(엄창욱·나주몽·백경호, 2021:127; 김영미, 2021; 이창현·박지영, 2023). 이에 따라 청년인구의 지역 이동을 생애 이행 과정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정책적 관점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인구이동에서 청년의 이동은 언제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인간의 생애과정에서 청년기는 교육, 취업, 가족형성, 독립과 같은 중요한 생애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생애사건은 그 구간을 통과하는 청년들에게 여러 차원에서 경험되는데,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주거 모빌리티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 혼인 등의 생애 사건은 생활 공간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원 가족과 함께 살던 지역으로부터 먼 지역으로의 대학 진학, 취업은 청년의 거주지 이동과 함께 이뤄지며, 혼인 역시 가구 독립과 함께 거주지 이동이 수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생애 이행은 경제활동, 가족 재생산의 거시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공간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청년 인구의 이동은 생산인구의 이동인 동시에 재생산 인구의 이동으로서 지역사회의 인구

1) e-나라지표 출생사망추이 통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1](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11)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함의로 인해, 청년 인구이동, 특히 국가 경계 내에서의 인구이동은 전통적으로 경제와 인구의 영역에서 조명되어 왔다. 토다로(Todaro, 1969)의 논의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근대의 도시 발달과 함께 서술되는 인구이동의 변천사 속에서 청년의 인구이동은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나 도시를 향하는 ‘이촌향도(離村向都)’로 이론화됐다(Zelinsky, 1971; 임정덕, 1998; 권상철, 2003). 청년 인구이동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국토 불균형 발전과 지역인구 고령화 상황 속에서 일정한 유형의 인구정책을 산출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유치, 신혼부부 지원정책, 출산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다(김용현, 2012; 정성배·이지우, 2018; 강동우, 2019).

그러나 이같은 논의 지형에서 청년들의 모습은 젠더를 ‘지운’ 모습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장민지, 2021:22; 김수아, 2021). 청년의 이동이 생애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 이들의 생애 이행에 작동하는 성별화된 규범, 제도 같은 차원이 이들의 모빌리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이현욱, 2013:109). 그러나 국가 경계를 넘는 이주 연구 영역에서 여성들의 모빌리티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누적되어 온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인구이동에서의 성별 차이가 분석의 초점이 되는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이유정·지성일, 2024:2; 전명숙, 2018:216).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그동안 지역 인구이동 분석에서 여성의 모빌리티가 어떻게 다루어졌는가를 살펴본 후, 보다 적극적으로 젠더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년들의 인구이동에 성별화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 전략으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 변수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의 이주 의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변수의 영향력에 성별 변수의 조절효과가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여성 청년들의 지역 간 이동 분석과 정책 설계에 젠더 관점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 II. 청년 인구이동 현황 및 선행연구 검토

### 1. 청년의 지역 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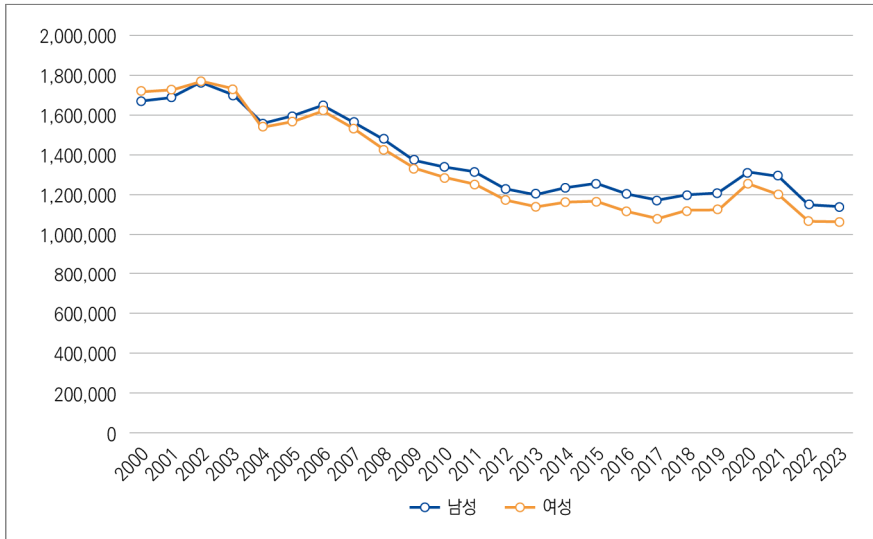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의 지역 인구이동은 노동시장과 연동되어 대도시를 향하는 흐름으로 파악되어 왔다. 이규용 외(2015:53-60)가 분석한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계 지표를 살펴보면, 청년인구의 이동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이동률 감소는 전(全)연령대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추이로 파악되며, 청년층의 감소세가 가장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추세는 청년의 이동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슷한 시기를 분석한 강동우(2019:48-49)의 연구도 청년인구의 이동 양태 중 시·도 경계를 넘는 지역 간 이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학 진학 및 취업 시기에 발생하고 수도권 지향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분석들에서 청년의 지역이동은 기본적으로 지역 노동시장과 연계된 인구 유출 문제로 파악된다(최예슬·김민영·임업, 2015; 김리영·양광식, 2013; 엄창옥·나주몽·백경호, 2021 등).

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2023년까지의 20~34세 청년 이동자 수를 살펴보면([그림 1]), 2015년의 시점에서 파악되는 추세와는 다른 경향성이 확인된다. 즉 201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추세가 멈추고, 이동량 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sup> 청년인구 규모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이동량 규모가 유지된다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청년인구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전체 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중, 전체 이동자 수 대비 청년 이동자 수의 비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기도 한 2020~2021년 기간에 소폭 상승세가 확인되지만, 전체적인 추세 변화로 보이지는 않는다.

(단위: 명)



[그림 1] 2000~2023년 20~34세 남녀 이동자 수

〈표 1〉 전체 인구 및 이동 대비 청년인구 비중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인구 중 청년인구 비중	20.8	20.5	20.2	20.0	20.0	19.9	19.8	19.6	19.4
전체 이동 중 청년이동 비중	31.3	31.5	31.7	31.8	32.9	33.3	34.7	36.2	36.1

주: 2015~2023년 통계청 국내이동통계.

먼저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 해 동안의 전체 국내인구이동량은 약 61.5만명이었고, 이 중에서 20~34세 청년인구의 이동량은 약 22.3만명으로 36.2%를 차지한다. 2022년 전체 연앙인구(51,692,272명) 대비 20~34세 인구(10,112,388명)의 비중이 19.6%인 것을 감안하면, 이 연령대에서의 인구이동은 매우 활발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이후 20~34세 청년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인구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의 이동성이 점차로 중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일자리 문제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산출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청년

세대의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문화, 가치관, 라이프스타일로 불리는 삶의 태도와 같은 요인들의 중요성이 이전 세대에 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지역이동 분석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이선영, 2017; 엄창욱·노광욱·박상우, 2018; Gosnell and Abrams, 2011; Gkartzios and Scott, 2015).

이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청년 정책(김화연·이대웅, 2022; 최선·이정은, 2022; 엄창욱·노광욱·박상우, 2018), 문화·소비 환경(이찬영, 2018; 고명지, 2020)이나 보육·교육 여건(이상욱·권철우·임영주, 2019; 오은열·문채, 2016), 주거 환경이나 삶의 만족도, ‘웰빙’(박소현·이금숙, 2019: 352; 이지은·이정은, 2020; 박순철·도수관, 2023)과 같은 요인들이 청년들의 정주 의사 및 지역 이동에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 2. 지역 이동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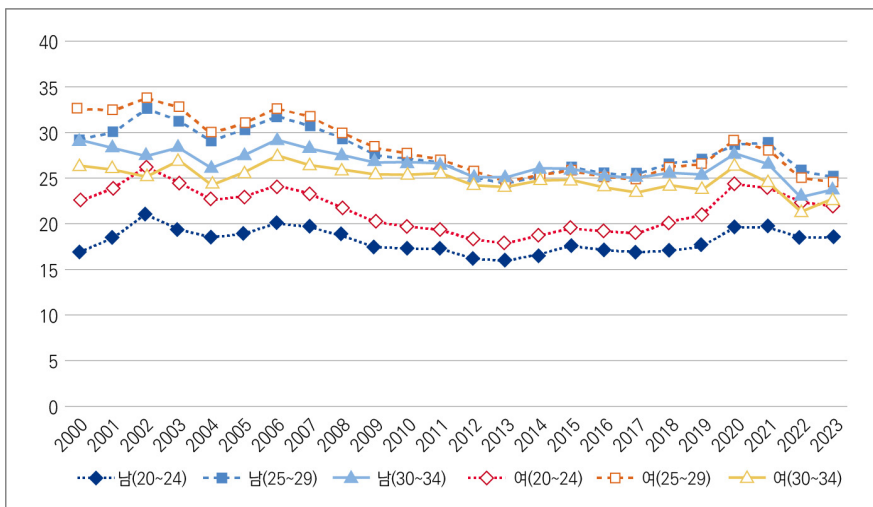
청년 세대의 지역 이동에 다양한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검토되면서, 청년의 집단 내 다양성·이질성의 중요성도 함께 주목되고 있다. 거시적인 국내인구이동 지표만을 보아도, 전체 인구이동량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지만 지역 간 이동, 연령별 이동, 이동률 등의 지표로 보았을 때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특히 분석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연령대에 따라 청년 이동의 성별 차이는 일관된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상욱, 권철우, 임영주(2019)의 연구는 2015년 울산지역 20~30대 청년의 지역 이탈을 분석했는데, 여성 청년, 특히 20대 여성의 지역 이동 가능성이 남성에게 비해 낮게 나타났다(이상욱·권철우, 2019:54). 반면 같은 울산 지역에서 2020년 19~34세 청년들에 대해 실시한 분석에서 박순철, 도수관(2023)의 연구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같은 사례를 넘어서, 전체 이동량으로 보았을 때도 남성 청년의 이동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지역 스케일에서는 여성 청년의 순유출 규모가 더 크고, 수도권으로의 진입 경향 역시 더 뚜렷한 것으로 보고된다(전명숙, 2018:219; 이정은, 2022:285; 이유정·지성일, 2024).

이러한 청년 인구 집단 내 다양성은 다음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아래 [그림 2]는 청년인구 이동률을 성별, 연령집단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동률은

해당 인구집단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기간동안의 이동자 수를 전체 인구 수(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가장 하단의 점선이 20~24세 연령집단이고, 실선에 가까워질수록 높은 연령대를 나타내는 선이다. 적황색 계열이 여성 청년집단을, 청색 계열이 남성 청년집단을 나타낸다. 20~24세 집단에서 남성 이동률에 비해 여성 이동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이 눈에 띄는 패턴이다. 25~29세는 남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30~34세 집단은 남성이 여성보다 이동률이 높게 나타난다.

(단위: %)



[그림 2] 성별 및 연령집단별 이동률 추이

이러한 이동률 패턴은 이동 거리가 가장 먼 시도 간 이동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시도 간 이동률을 계산해보면, 가장 높은 집단이 25~29세 남성청년(11.5%)이고, 가장 낮은 집단은 30~34세 여성 청년(7.2%)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역 경계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았을 때([그림 2])와 마찬가지로, 20~24세 집단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이동률 격차가 정반대로 나타난다. 즉 여성 청년의 이동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이러한 차이는 청년 인구이동 내에서도 성별에 따라 지역 이동의 기제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청년 인구이동 패턴에서 성별 차이가 확인되기 때문에, 여성 청년집단에 초점을 맞춘 인구이동 분석 연구가 더욱 축적될 필요가 있다. 그간 청년 인구이동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년을 하나의 인구집단으로 설정하면

서, 그 내부의 이질성을 다루는 여러 범주 중에 하나로서 성별을 다루는 경우가 많고(가령 최진호, 2008; 이찬영, 2018; 이상욱·권철우·임영주, 2019 등), 성별 변수가 아예 설정되지 않는 분석들도 있다(이찬영·이흥후, 2016; 안준기·김은영, 2024).

한편 청년 여성을 분석 주제로 다룬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청년 여성의 모습은 특정한 관점에서 구성되고 있다. ‘재생산인구(가임인구)’로 호명하거나(이유정·지성일, 2024) 이들의 주거 불안정성(권민지, 2018; 임혜순·김승희, 2022; 문수연·신광영, 2021), 고용 불안정성(이현욱, 2013; 고영우, 2019), 1인 가구 형태(임혜순·김승희, 2022:76; 이유정·지성일, 2024)에 주목하여 정책적 접근을 취하는 논의가 많다.

이러한 논의 지형은 여성 청년의 이동에 대해 더욱 다양한 접근과 논의가 축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청년의 이주는 이동 거리에 따라, 이동 목적과 기제에 따라, 사회적·시대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여성 청년의 이동 사유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으나(최진호, 2008), 최근으로 올수록 그러한 격차는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서울로 진입하는 인구에서 여성 청년의 비중이 두드러지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시·군 간 또는 시·도 간 경계를 넘는 이동에서는 남성 청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채성주·설영훈, 2014). 주민등록 기반의 인구 분석뿐만 아니라, 생활인구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도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들에 대한 논의도 보고되고 있다(최미란·고우림·조영태, 2024).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 청년의 이동을 조명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 인구의 이동의 젠더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동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동이 수행되는 메커니즘 전반으로 분석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여성 청년의 이동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나 차별적인 젠더 규범(김현영·김태연, 2021:201), 지역사회의 문화적 환경 및 젠더 인식(이정은, 2022; 이상욱·권철우·임영주, 2019:54)에 따라 억압되기도, 추동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반된 영향력, 그리고 여성 청년들의 다양한 협상과 전략 실천은 주거지 이동이라는 결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좌절되기도 한다. 또한 여성 청년의 생애 전략에 따라, 주거지 이동은 ‘성공’일 수도 있으나, 정착에 ‘실패’한 것일 수도 있다(김지영·이경영, 2024:209). 이러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고자 한다면, 청년의 지역이동에 대한 젠더적 분석은 ‘결과로서의 이동/주거’에서 분석 범위를 확장하여 이동에 대한 동기나 이주에 대한 상상의 영역까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 청년의 생애 전략으로서의 이주 의향

이 연구는 청년들의 주거지 이동에 작용하는 성별화 맥락을 포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주 의향’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다. 청년들의 주거지 이동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생애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대학 입학이나 취업, 혼인과 같이 생애 단계가 이행되는 사건은 주거지 이동, 생활환경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반대로, 생애 이행 동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거지 이동이 시도되기도 한다. 더 좋은 일자리, 더 높은 임금 수준을 얻기 위한 이동뿐만 아니라, 더 나은 생활환경, 미래에 대한 전망, 삶의 가치와 공간에 대한 상상과 의미 부여 등이 주거지 이동에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Cresswell, 2001; Coulter, Ham, & Findlay, 2016:360). 그래서 주거 모빌리티에 대한 연구들은 생활 공간을 이동한다는 것은 특정한 지역 조건을 선택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행위자가 처한 다중-스케일의 미시적·거시적 제약 조건과 다양한 공간적 상상과 실천 전략이 얹혀 전개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Holtrup and Moehrig, 2023:306-307; Rory Ham & Findlay, 2016; 여수연, 2024).

특히 주거지 이동을 생애과정의 맥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Speare, 1974; Moen and Wethington, 1992; 이태원, 2015)은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제약을 극복하거나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이주를 도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 세대의 이주 동기는 학력자본의 취득, 취업, 높은 소득, 문화자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바탕에는 자신이 처한 사회구조적 위치를 ‘벗어나고자’ 하는 공통의 동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정민우·이나영, 2011). 그리고 이러한 환경 인식, 공간과 모빌리티에 대한 상상, 생애 전략의 모색에는 현존하는 젠더 규범과 성별화된 사회문화 환경이 작동하게 된다(장민지, 2021).

청년의 주거지 이동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은, 이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확장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으로 분석되어 온 것은 주로 일자리, 경제적 조건, 지역의 환경적 요소들이 많았다. 그러나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자신의 환경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와 같은 주관적 요인들이 이들의 주거 모빌리티와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바탕 위에서, 여성 청년들이 조우하게 되는

여성의 모빌리티와 관련된 다양한 제약과 규범, 관습, 그리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여러 생애 전략의 모색을 탐색하기 위한 전략 지점으로서 '이주 의향'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주 의향은 실제 이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실제 이주가 실행되는 전 단계 혹은 예측 요인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최선·이정은, 2022:169; 이지은·이정은, 2020). 이는 분석 결과의 함의를 확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당장은 이주 능력이 없어도, 언젠가 이주를 실행할 수 있는 인구집단을 포괄하여 청년들의 주거 이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김이선, 2023:13).

더욱이 이정은(2022:287)은 고영우(2019)의 출생 코호트별 지역인구이동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출생코호트의 경우 대학 진학, 취업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간 이동을 기획한다는 점을 논의한 바 있다. 오늘날 청년인구의 이러한 전략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이주 의향을 이들의 생애전망과의 관련성 속에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의 지역이동에 대한 논의가 노동시장 성과에 집중되어있는 인구연구 지형에서, 이들 내부의 다차원적인 이질성과 격차를 조명해야한다는 지적(변금선·김기현, 2019:258)에 대해서도 하나의 응답이 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이주 의향을 추동하는 삶의 제약 인식 요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요인에 성별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의 청년 및 여성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분석방법

이 연구는 청년인구를 모집단으로 하는 사회조사데이터(『청년 삶 실태조사』)를 사용해 이들의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취업 상태, 부모 동거 여부, 주거지 특성 등 이주 의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변수 외에도 삶의 만족도, 사회관계망 등 생애 전반의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젠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독립변수에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회귀모형(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성했다.

## 1. 분석 자료

『청년 삶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제11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로, 전국 17개 시도 일반가구 내 청년(19~34세)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한다. 2022년이 제1회 조사로, 청년 응답자 총 14,966명의 데이터를 담고 있다(정세정 외, 2022:92~98). 아래 기본 현황을 포함하여 원고 내 데이터 분석결과는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서』(정세정 외, 2022)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공되는 최종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됐다.

〈표 2〉 분석 데이터 기본 현황

구분		가중치 미적용 사례 수(명)	가중치 적용 비율(%)
전체		14,966	100.0
성별	남성	7,171	52.5
	여성	7,795	47.5
연령	19~24세	7,195	35.3
	25~29세	4,549	34.1
	30~34세	3,222	30.6
거주 지역	수도권	4,938	53.0
	비수도권	10,028	47.0
부모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7,832	57.5
	부모와 비동거	7,134	42.5
배우자 유무	현재 배우자 있음	1,570	17.5
	현재 배우자 없음 (미혼, 이혼·별거·사별)	13,396	82.5
취업 여부	취업	9,649	68.9
	비취업	5,317	31.1
교육 상태	대학 재학	4,734	24.0
	졸업자(고졸/대졸)	10,232	76.0

## 2. 분석 모형

통계청 인구이동집계 데이터에서 드러나는 성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청년들의 이주 의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는 가설을 회귀모형(로지스틱)으로 구성한다. 먼저 선행연구들의 분석 모형(오은열·문채, 2016; 이찬영·이흥후, 2016; 엄창욱·노광욱·박상우, 2018, 이상욱·권철우·임영주, 2019; 최선·이정은, 2022 등)을 기반으로 하여 청년들의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부모 동거(독립 여부), 배우자 유무, 연령범주 및 주거지 형태(자가 여

부), 주거환경 인식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경제적 요인, 사회관계적 요인, 주관적 안녕감, 미래전망 변수를 설명요인으로 설정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은 아래 식과 같으며, 각 변수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으로 정리하였다.<sup>3)</sup>

$$\ln(Y) = \beta_0 + \beta_1 BX + \beta_2 X_{econ1} + \beta_3 X_{econ2} + \beta_4 X_{socnet} + \beta_5 X_{well1} + \beta_6 X_{well2} + \beta_7 X_{future1} + \beta_8 X_{future2} + \beta_9 X_{future3} + \beta_{10} X_{future4} + \beta_{11} X_{interaction1} + \beta_{12} X_{interaction2} + \beta_{13} X_{interaction3} + \epsilon$$

Y: 이주 의향 오즈

BX\_basic: 기본 변수 행렬(성별, 연령 범주, 혼인 상태, 교육 상태, 부모 동거 여부, 교육·취업 이주 여부, 현 주거지 점유 형태, 주거 환경 인식 요인점수, 주거지 문화 격차 인식)

X\_econ1,2: 경제활동 여부, 균등화 가구소득

X\_socnet: 사회적 지원 연결망의 크기

X\_well1,2: 번아웃 경험, 삶의 만족도

X\_future1~4: 격차 변수(가족의 경제수준, 나의 노력, 사회연결망, 정책지원)

X\_interaction1~3: 상호작용항. 성별\*(부모와 동거 여부, 번아웃, 사회연결망)

<표 3> 변수 조작화 및 기술통계

변수	측정/조작화	평균 (표준오차)
이주 의향	“현재 살고 있는 시/도에서 계속 살고 싶으십니까?” • 계속 살고싶다: 0,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싶다: 1	0.27 (0.005)
교육·취업 이주 여부	“학업 또는 일자리를 이유로 현재 살고있는 시/도로 이사해 오셨습니까?” • 비해당: 0, • 해당: 1	0.26 (0.005)
주거지 점유형태	• 비자가: 0, • 자가: 1	0.56 (0.005)
주거환경에 대한 주성분 점수	① 생활인프라, ② 대중교통, ③ 범죄안전, ④ 위생환경, ⑤ 녹지공간, ⑥ 문화환경, ⑦ 교육환경, ⑧ 이웃관계 총 8 가지 요인에 대한 만족도 점수에 대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 최종적으로 3개의 주성분점수를 사용	-0.15 (0.023)
		-0.02 (0.010)
		0.02 (0.008)

3) <표 1>과 중복되는 변수는 생략하였음

변수	측정/조작화	평균 (표준오차)
문화 격차 인식	① 문화예술활동, ② 스포츠 활동, ③ 여가 관련 단체, 동호회 활동, ④ 2~3일 정도의 여행 총 네 가지 항목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음에도 지난 1년간 하지 못한 경우의 수: 0~4의 크기	0.24 (0.007)
균등화 가구소득	연간 총 가구소득 / $\sqrt{\text{가구원 수}}$ (단위: 만원)	4198 (26.2)
사회적 지원 연결망	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② 본인 또는 가족이 아플 때, ③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④ 생활비가 부족할 때, ⑤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총 다섯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 있는 경우의 비율: 0~5의 크기	4.88 (0.005)
변아웃 경험	• 없음: 0 , • 있음: 1	0.34 (0.005)
삶의 만족도	단위: 0~10점 척도	6.72 (0.021)
가족 경제 격차	본인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4점 척도)와 실제 내가 그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4점 척도)의 차이값 (단, 음수 값은 모두 0점으로 처리)	0.51 (0.008)
나의 노력 격차		0.73 (0.008)
사회연결망 격차		0.56 (0.007)
정책지원 격차		0.92 (0.009)

투입 변수 중에서 주거환경 인식 문항은 생활인프라, 대중교통, 범죄안전 등 다양한 환경 요인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되어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부적인 주거환경요인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형의 해석을 간명하게 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했다.

〈표 4〉와 〈표 5〉는 각각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문항 간 내적신뢰도 (Cronbach  $\alpha$ ) 값이 0.9, KMO(Kaiser Meyer Olkin factor adequacy) 값 0.9로 주성분분석으로 요약하기에 적합함을 확인했고, 바틀렛(Bartlett) 검정에서도  $\chi^2=69894$ ,  $df=28$ 으로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측정된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독립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했다. 〈표 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주거환경 인식 변수 군의 설명 분산 비율을 약 80%까지 반영하도록 세 개의 주성분점수를 모형에 사용했다.

〈표 4〉 주거환경 인식 8개 문항에 대한 주성분분석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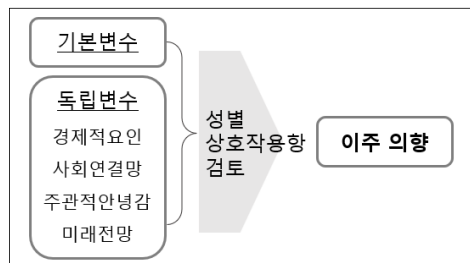
	주성분1	주성분2	주성분3
Standard deviation	2.20	0.93	0.78
Proportion of Variance	0.60	0.11	0.08
Cumulative proportion	0.60	0.71	0.79

모형에 사용한 주성분점수와 원 변수 간의 적재량은 〈표 5〉와 같다. 이때 주성분 1의 값은 각 항목 만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값이 증가할수록 주거환경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표 5〉 주거환경 인식 8개 문항과 주성분 변수 간 적재값

	주성분1	주성분2	주성분3
현재 거주지역의 교육환경 만족도	-0.38	0.08	-0.38
현재 거주지역의 녹지공간 만족도	-0.34	-0.37	-0.12
현재 거주지역의 대중교통시설 만족도	-0.32	0.62	0.20
현재 거주지역의 문화부대시설 만족도	-0.37	0.10	-0.45
현재 거주지역의 생활인프라 만족도	-0.37	0.44	0.09
현재 거주지역의 위생환경 만족도	-0.36	-0.33	0.49
현재 거주지역의 이웃 관계 만족도	-0.31	-0.36	-0.33
현재 거주지역의 방법상태 만족도	-0.37	-0.18	0.49

이상과 같이 구성한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3]과 같은 단계에 따라 최종 분석결과로 도출된다. 기본 변수 중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 변수를 성별 상호작용항으로 추가 투입하고, 독립변수는 모두 성별 상호작용항으로 투입하여 1차적으로 결과를 검토했다. 이후 유의한 상호작용항을 중심으로 이주 의향을 설명하는 최종 모형을 채택하여 분석 결과로 제시했다.



[그림 3] 연구모형의 도식화

## IV. 분석결과

### 1. 청년 이주 의향의 성별 차이

앞서 청년인구의 지역 간 이동 통계를 통해 이동률에 성별 차이가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20~24세 연령구간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주 의향 역시 이러한 상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분포로 나타나고 있음을 <표 6>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20~24세 여성의 이주 의향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25~29세 그룹을 제외하면 여성 집단의 이주 의향이 더 높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주 의향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표 6> 성별 이주 의향 응답 분포

(단위: %)

		이주 의향 없음	이주 의향 있음	차이검증
성별	여성	68.6	31.4	$\chi^2 = 7.71$ , df=1, p-value < 0.001
	남성	70.7	29.3	
성별 X 연령집단	여성 20~24세	67.5	32.5	$\chi^2 = 249.3$ , df=5, p-value < 0.001
	여성 25~29세	75.0	25.0	
	여성 30~34세	75.9	24.1	
	남성 20~24세	69.4	30.6	
	남성 25~29세	74.0	26.0	
	남성 30~34세	77.8	22.2	

### 2. 이주 의향 영향요인 분석

<표 7>은 19~34세 청년집단의 타 지역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최종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각 회귀계수는 해석의 편의성을 위해 오즈비로 환산하여 제시했다. 각 변수의 효과를 살펴보기 전에 모형적합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은 층화추출 데이터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진행됐기 때문에, 로그우도비 테스트(LR test) 대신 왈드 검정(Wald test)을 제시한다.<sup>5)</sup> 검정결과 상호작용항을 적용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상호작용항

4) 청년 집단 내 연령대별 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이 연구의 분석에서는 다루지 못했으며,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을 투입한 모형이 유의하게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F=7.8$ ,  $p \leq 0.001$ ). 다만 로그우도비 테스트를 실시해도 동일한 판단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AIC와 BIC 지표 값에서도 모형이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7〉 로지스틱 회귀모형 추정결과

		Model 1		Model 2	
		O.R	S.E	O.R	S.E
기본 변수	성별(기준: 남성)	1.10 †	0.05	2.08 †	0.40
	25~29세(기준: 20~24세)	0.91	0.07	0.92	0.07
	30~34세(기준: 20~24세)	0.78 **	0.08	0.79 **	0.08
	부모 동거(기준: 비동거)	0.94	0.07	0.84 †	0.09
	배우자(기준: 없음)	0.90	0.09	0.92	0.09
	교육기관 재학(기준: 졸업)	1.50 ***	0.07	1.50 ***	0.07
	수도권 거주(기준: 비수도권)	0.82 ***	0.05	0.82 ***	0.05
	교육·취업 이주(기준: 비해당)	1.18 **	0.06	1.19 **	0.06
	자가 소유(기준: 비자가)	1.01	0.07	1.02	0.07
	주거환경 주성분1	1.18 ***	0.01	1.18 ***	0.01
	주거환경 주성분2	0.82 ***	0.03	0.82 ***	0.03
	주거환경 주성분3	1.02	0.03	1.02	0.03
경제 조건	문화 격차 인식	1.13 ***	0.04	1.13 ***	0.04
	취업자(기준: 비취업자)	0.84 **	0.06	0.82 ***	0.06
관계 조건	균등화 가구소득	1.00	0.00	1.00	0.00
	사회적 지원 연결망	1.03	0.04	1.14	0.06
주관적 웰빙 조건	번아웃(기준: 경험없음)	1.32 ***	0.05	1.10	0.08
	삶의 만족도	0.95 ***	0.01	0.95 ***	0.01
미래실현조건	가족 경제 격차	1.01	0.04	1.01 *	0.04
	나의 노력 격차	1.01	0.04	1.01	0.04
	관계망 격차	1.10 *	0.04	1.10 *	0.04
	정책지원 격차	1.12 ***	0.03	1.11 ***	0.03
상호작용항	성별 X 부모 동거			1.25 *	0.10
	성별 X 번아웃			1.42 ***	0.10
	성별 X 사회연결망			0.83 *	0.08
모형적합도 test		$F(3, 14940)=7.80$ , $p \leq 0.001$			
AIC		16520.68		16493.05	
BIC		16671.10		16663.23	

\* $p < .05$ , \*\* $p < .01$ , \*\*\* $p < .001$

5) 총화추출 데이터를 사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적합도 적용에 대해서는 백영민·박인서 (2022:156)를 참조하였다.



〈표 7〉의 분석결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오즈비)1)과 20-24세 집단에서 이주 의향이 가장 높다는 점을 재확인해준다. 부모와 동거하고 있을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이주 의향을 가지고 있을 오즈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동거 변수는 이후 상호작용항 분석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성별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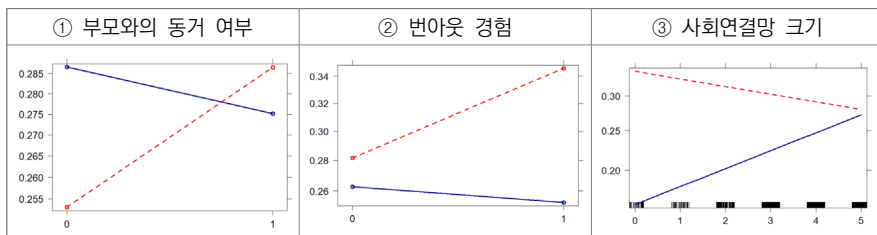
아직 교육 상태에 있을 경우(대학 재학), 현 주거지가 교육 또는 취업 때문에 이주해 온 곳일 경우에는 이주 의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생애단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교육이나 취업에 따른 이동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이주 의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주 의향 오즈가 감소한다. 청년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일자리 효과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 외에도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전반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을 경우(‘주거환경 주성분 1’ 변수), 대중교통 및 생활 인프라 만족도가 낮을 경우(‘주거환경 주성분 2’ 변수), 현재의 주거지에서 문화 활동 격차를 크게 인식할수록(‘문화 격차 인식’ 변수) 이주 의향 오즈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수가 도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높은 삶의 만족도는 이주 의향이 형성될 가능성을 낮춘다. 이같은 결과는 청년들의 삶의 안정성 및 주거환경 인식이 이주 의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음을 재확인해준다.

분석 결과에서 새롭게 탐색하고자 하는 부분은 ‘경제’, ‘관계’, ‘주관적 웰빙’, ‘미래실현조건’ 영역의 변수들이다. 각 영역의 변수들은 청년들이 자신이 위치한 삶의 조건과 미래 전망과 연결지어 해석할 수 있는 변수들이다. 가령 청년들은 어떠한 경제적·관계적·주관적 웰빙 조건에서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을 상상하게 되는가?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 오즈가 감소한다. 반면 번아웃 경험이 있는 경우(Model 1), ‘미래실현조건’ 영역 변수들에서 격차를 크게 느끼는 경우에는 이주 의향 오즈가 증가한다. ‘미래실현조건’ 영역의 변수들은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족 배경, 본인의 노력, 사회적 연결망, 정책적 지원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와 자신이 각 항목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의 차이를 측정하고 있다. 즉 청년들의 미래 전망과 현재 삶의 제약에 대한 인식이 이주 의향과 유의미하게 연결되어있는가를 검증할 수 있다. 이 영역의 변수가 유의하게 검증된다면, 청년들은 주거지 이동을 자신의 삶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생애 전략으로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변수가 유의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바라는 미래를 실현하는 조건으로서 좋은 사람들을 아는 것” 변수(‘관계망 격차’)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변수(‘정책지원 격차’)는 격차를 크게 인식할수록 이주 의향 오즈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미래 전망에 있어 자원의 한계를 느낄 경우, 이를 우회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이주’를 고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사회적 지원 연결망 크기’는 값이 클수록 이주 의향 오즈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서 언급한 부모와의 동거 여부 변수와 함께 성별에 따라 효과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절에서 따로 검토한다.

### 3. 이주 의향 영향요인의 성별 효과

청년들의 이주 의향에 생애 환경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변수들이 상호작용항 검증을 통해 드러났다. 본 연구의 모형에서 유의하게 도출된 상호작용항은 부모와의 동거 여부, 사회적 지원 연결망의 크기, 번아웃 변수이다. 이들 변수가 성별 변수와의 상호작용항에서 유의하게 검증됐다는 것은, 청년들의 이주 의향을 형성하는 매커니즘에 젠더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 [그림 4]와 같이 상호작용항 효과를 시각화하였다.<sup>6)</sup>



주: y축-이주 의향 가능성, 여성-블루 점선, 남성-푸른 실선.

[그림 4] 성별×변수별 상호작용효과

①번 그래프에서 남성 청년(푸른 실선)의 이주 의향은 부모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높게 나타나지만,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x축 1의 위치)에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x축 0의 위치)보다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

6) 각 상호작용항 그래프는 이 논문의 최종모형인 <표 7> Model2의 회귀식에 따라 계산된 Y변수 예측값을 사용하여 작성됐으며, ③ 연결망크기 변수의 경우 기준으로 평균 및 표준오차값을 사용했다.

향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여성 청년(붉은 점선)에서 반대로 나타난다. 즉 부모와 동거하는 여성 청년의 이주 의향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여성 청년의 이주 의향보다 높게 형성되어있다. 이같은 결과는 여성 청년들이 주거지 이동을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으로 의미화하는 경향이 남성 청년에 비해 강하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거불안계급'에 속하는 여성 청년들의 공간 전략을 분석한 권민지(2018)의 연구에서도 주거 독립이 가부장적 규범, 가족 내 권력 관계를 벗어날 가능성이자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인 바 있다. 여성 청년의 거주 독립, 이동성이 여전히 젠더 규범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이정은, 2022: 303),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서 먼 거리의 거주지 이동이 모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②번 그래프는 번아웃 경험 유무에 따른 이주 의향에 대한 상호작용 그래프이다. 먼저 남성 청년은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x축 1의 위치)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 오즈가 더 낮게 나타난다. 반면 여성 청년은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주 의향 오즈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번아웃 변수는 삶의 만족도 변수와 함께, 청년의 주관적 웰빙 수준과 이주 의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설정된 변수이다. 번아웃 경험이 있다는 것은 현재의 삶에서 생활 에너지가 고갈되는 상황을 겪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갈 경험이 여성 청년의 이주 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들이 삶의 제약을 탈피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거주지 이동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남성 청년에 대해서는 번아웃 경험이 이주 의향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③번 그래프의 사회연결망 효과와 함께 해석했을 때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마지막 ③번 그래프는 사회연결망의 크기와 이주 의향이 성별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 청년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연결망의 크기(x축)가 클수록 이주 의향(y축)이 높아지는 반면, 여성 청년은 지원받을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주 의향이 높아진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 청년의 이주가 여성의 이주 보다 장려되는 상황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즉 남성 청년은 사회적 지원 연결망이 클수록 이주 가능성이 장려됨으로 인해 이주 의향이 높은 반면, 여성 청년은 사회적 지원 연결망이 적을수록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모빌리티 전략으로서 이주 의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최근 경남 지역의 '산업 가부장제'(양승훈, 2019)와 여성 청년의 삶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과 맞닿아 있다(허은, 2018; 2020; 이정은, 2022;

최미란·고우림·조영태, 2024). 이들 연구는 거제(양승훈, 2019), 창원(허은, 2018; 이정은, 2022), 울산(김하영, 2022; 최미란·고우림·조영태, 2024) 등 경남 지역의 경우 지역 사회의 관습, 문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과 제도적 수준까지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지배적이며, 이로 인해 여성들의 노동과 자율적인 삶의 가능성이 중층적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논의했다. 또한 지역의 남성중심적 사회분위기가 여성 청년들의 생활수준이나 사회적 자원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 청년 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남성 청년들의 이주 의향은 번아웃 경험이 없을 때,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클 때 높아진다. 심리적, 사회적 자원의 뒷받침 속에 모빌리티를 생애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미화하는 것이다. 반면 여성 청년들의 이주 의향은 번아웃 경험이 있을 때, 사회연결망의 크기가 작을 때 높아진다. 여성 청년들은 심리적, 사회적 자원의 고갈 속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도모하는 것으로 대비된다. 이같은 결과는, 위에서 살펴본 경남 지역 연구의 함의가 전국을 모집단으로 하는 통계 데이터에서도 확인되며, 특정 지역을 넘어서 오늘날 청년인구의 모빌리티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청년 인구의 지역 이동을 ‘이주 의향’ 변수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청년들이 주거지 이동을 생애 전략으로서 의미화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러한 의미화에 젠더 차이가 존재함을 드러내어 보이고자 했다. 국가 경계 내에서의 청년의 이동은 핵심생산인구의 이동이자 재생산인구로서 경제·인구·지역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다뤄져 왔다. 그러나 청년 세대를 경제활동인구, 재생산인구로만 호명하는 관점으로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이들의 생활 양식과 이동 양상을 적절하게 포착하여 설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이동을 추동하는 동기와 사회적 조건이 충분히 이해되었을 때,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나 재생산 위기에 실마리를 제시하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나타난 2020년대 청년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을 살펴보면, 청년 내에 성별에 따른 패턴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세-34세 집단을 놓고 보았을 때, 여성 청년은 20~24세 구간에서 매우 높은 이동률을 보여주다가, 25세 이후 구간에서는 남성청년의 이동률보다 낮아진다. 이같은 양상은 국내 인구이동 중에서 가장 먼 거리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시·도 간 이동’에서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이러한 성별 차이,

그리고 20~24세 구간에서의 여성 청년의 높은 이동률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이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호작용항 분석을 통해 젠더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주의 역사는 여성의 모빌리티를 위협한 것, 국가와 가족(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가 통제(어떤 때에는 보호의 서사로, 어떤 때에는 억압의 서사로)하는 무언가로 다뤄왔음을 보여준다. 이동하는 주체가 이동의 비용과 도착지에서 기대 이익 비교를 통해 주거지를 옮기는 것으로 설명하는 틀로는 젠더화된 이동 양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성별화된 규범이나 조건으로 인해 좌절되거나 전략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이주까지를 포괄하여 청년 인구이동의 젠더화된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이주 의향'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청년들의 이주 의향은 전통적인 이동모형에서 고려하는 연령, 가족형태, 경제적 조건, 주거환경 등의 변인에도 영향을 받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번아웃과 같은 심리적 경험, 사회적 지원연결망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주거지 이동을 생애 전략으로서 의미화하고 있음을 2022년 한국사회의 청년집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인들의 작동에서 젠더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성 청년들은 남성 청년들과 달리, 번아웃과 같은 심리적 소진 상태나 부모와의 동거 상태가 이주 의향 증가와 연결돼 있다. 또한 남성 청년은 사회적 지원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이주 의향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비해, 여성 청년은 사회적 지원 연결망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주 의향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여성 청년은 사회자본이 부족한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애 전략으로서 타 지역 이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주 의향이 형성되는 반면, 남성 청년은 모빌리티 실천에 대한 긍정적인 지원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의 크기가 클수록 이주 의향이 형성되기 쉽다는 가설을 고려하도록 한다. 사회적 지원 연결망이 여성에 대해서는 모빌리티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남성에 대해서는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 주거지 이동을 제약된 생애 조건을 극복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상상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의미화에는 젠더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 여성 청년의 수도권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미래 전망과 성장 가능성 인식, 생애 이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성인지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지역에서는 인구이동 패턴에 성별 격차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면 청년들의 이주 의향과 실천에 작동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청년 집단 내부에 성별에 따른 명확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해주며, 따라서 지역 여성 청년들의 모빌리티와 생애 전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이주 의향’ 변수는 청년들이 희망하는 이주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동의 방향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청년들이 생애 전략으로서 상상하는 모빌리티의 방향은 수도권이나 도시 방향으로 설정되어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비수도권이나 농촌지역이 상상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 삶의 실태조사’에는 해당 내용이 조사되지 않아 이주 의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이 제한된다. 추후의 조사 자료 확보와 연구로 넘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동우(2019). “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과 지역 특성의 영향”. *노동리뷰*. 제2019권 2호. 47-60.
- 고명지(2020). “청년세대 문화와 경제짓기: 청년세대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문화와사회*. 제28권 2호. 207-272.
- 고영우(2019). “청년여성의 지역이동 특성과 수도권 취업이동 분석: 1970, 1980, 1990년대생 코호트 간 비교”. *노동리뷰*. 제2019권 5호. 20-29.
- 구은정(2019). “저출산에 대한 인식지평 확장: 사적이고 친밀한 영역에서 향유하는/할 수 있는 가치”. *여성연구*. 제100권 1호. 191-226.
- 권민지(2018). “‘내 집’ 만들기 주거불안급 청년 여성의 공간전략”. *공간과 사회*. 제65권. 271-301.
- 권상철(2003). “인구이동과 인적자원 유출: 제주지역 유출-유입 인구의 속성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6권 2호. 59-73.
- 권태환·김두섭(2015).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리영·양광식(2013).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5권 3호. 1-20.
- 김수아(2021). “청년정책과 청년 담론: 젠더 관점의 고찰”. *이화젠더법학*. 제13권 2호. 251-286.
- 김영미(2021). “스웨덴 인구 담론 전환이 한국 저출산 정책에 주는 함의: 뮌헨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109권 2호. 101-131.
- 김이선(2023). “청년의 생애 전략으로서의 지역 간 모빌리티: 청년들의 이주 의향 분석”. *지역사회학*. 제25권 3호. 5-32.
- 김용현(2012). “지역 청년 역외유출 원인과 해소방안 연구”.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012권 8호. 506-533.
- 김지영·이경영(2024). “전라북도 거주 여성 청·중년층의 지속거주의사 영향요인 탐색: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지방정부 인식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120권 1호. 205-231.
- 김하영(2022). “지역 거주 20대-30대 여성들의 페미니스트 인식과 실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젠더와문화*. 제15권 2호. 133-168.
- 김현영·김태연(2021). “제주 지역 여성청년의 독립 경험에 관한 공간정치적 접근”. *공간과 사회*. 제31권 4호. 198-245.
- 김화연·이대웅(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의사 영향요인

-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2호. 261-288.
- 문수연·신광영(2021). “여성의 주거이동과 주거 점유 형태의 변화: 집단중심추세 방법을 적용하여”. 한국사회정책. 제28권 2호. 121-154.
- 박소현·이금숙(2019). “이동요인별 시공간적 인구이동 특성을 고려한 인구분포 예측: 마르코프 연쇄모형을 활용하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22권 3호. 351-365.
- 박순철·도수관(2023).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57권 2호. 309-346.
- 배은경(2010).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젠더와 문화. 제3권 2호. 37-75.
- 변금선·김기현(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46권 2호. 257-285.
- 안준기·김은영(2024). “청년층의 이동과 지역의 인구유출”. 지역산업과 고용. 2024년 가을호. 100-112.
- 양승훈(2019).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 산업도시 거제, 빛과 그림자. 오월의봄 출판.
- 엄창옥·나주몽·백경호(2021). “청년의 취업선호가 지역정착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지역개발연구. 제53권 2호. 125-147.
- 엄창옥·노광옥·박상우(2018).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제26권 3호. 259-283.
- 여수연(2024).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여성들의 서울-지역 공간 재의미화와 정착전략”. 지역사회연구. 제32권 4호. 151-178.
- 오은열·문채(2016). “지역인구이동 변화에 미치는 결정요인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제29권 4호. 67-92.
- 이상욱·권철우·임영주(2019). “청년층의 지역이탈과 이주지역 선택: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37권 1호. 43-66.
- 이선영(2017). 문화귀촌과 문화거점공간의 역할. 성공회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유정·지성일(2024). “서울시 1인 가구 청년여성들의 인구이동 및 영향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6권 1호. 1-17.
- 이정은(2022). “산업도시의 젠더 인식과 청년들의 이동”. 경제와 사회. 제134권. 282-316.
- 이지은·이정은(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24권 2호. 57-86.



- 이태원(2015). “이주희망의 결정요인과 권역별 차이 분석: 강원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54권 1호. 81-112.
- 이찬영(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31권 2호. 707-729.
- 이찬영·이흥후(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제34권 4호. 143-169.
- 이창현·박지영(2023). “청년들의 지방이주와 정주지속을 위한 장소정체성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제51권 3호. 139-152.
- 이현욱(2013). “청년층 여성의 취업이동과 불안정 고용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16권 2호. 105-118.
- 임정덕(1998). “한국의 지역 내 두뇌유출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34권.
- 임혜순·김승희(2022). “강원도 청년여성 1인 가구 주거지원 모색: 춘천 거주 청년 여성 1인 가구 FGD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61권 3호. 75-95.
- 장민지(2021). 여자들은 집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난다. 서해문집.
- 전명숙(2018). “전남지역 대졸 청년여성의 지역노동시장 경험연구: 노동이동을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24권 2호. 215-245.
- 정성배·이지우(2018). “대졸자의 관장은 일자리 취업 영향 요인 지역 비교”. 지역사회연구. 제26권 4호. 189-206.
- 정세정 외 12인(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간.
- 채성주·설영훈(2014). “충청북도 전입인구의 이전요인에 관한 기초연구”. 지역정책연구. 제25권 1호. 163-176.
- 최미란·고우림·조영태(2024).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한 제조업 지역 청년인구 분석: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47권 4호. 115-134.
- 최선·이정은(2022). “지방정부 청년정책과 이주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제30권 4호. 155-180.
- 최예슬·김민영·임엽(2015). “지역노동시장권의 특성이 핵심생산인구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제50권 5호. 25-42.
- 최진호(2008). “한국 지역 간 인구이동의 선별성과 이동 이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1권 3호. 159-178.
- 허은(2018). “창원 지역 노동계급 여성의 성별 노동 불평등 적응 기제에 관한 연구”. 경제와사회. 제120권. 158-197.
- 허은(2020). “부유한 노동자 도시의 여성: 울산과 창원 여성 일자리의 실태와 특성”. 지역사회연구. 제28권 3호. 87-113.

- Coulter, R., Ham, M. & Findlay, A. M.(2016). Re-thinking residential mobility: Linking lives through time and spa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0(3), 352-374.
- Cresswell, T. (2001). The Production of Mobility. *New Formations*, 43, 11-25.
- Gkartzios, M. & Scott, K.(2015). A Clutural Panic in the Province? Counterurban Mobilities, Creativity, and Crisis in Greece. *Population, Space, and Place*, 21, 843-855.
- Gosnell, H. & Abrams, J.(2011). Amenity migration: diverse conceptualization of drivers, socioeconomic dimensions, and emerging challenges. *GeoJournal*, 76, 303-322.
- Holtrup, S. & Möhring, W.(2023). Change of residence, change of media and information usage? The relation between residential mobility, spatial identification and media and information repertoire. *Applied Mobilities*, 8(4), 305-320.
- Moen, P. & Wethington, E.(1992). The Concept of Family Adaptive Strateg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233-251.
- Rory, C., M. van Ham, & A. M. Findlay.(2016). Re-Thinking Residential Mobility: Linking Lives through Time and Spa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0(3), 352-374. doi:10.1177/ 0309132515575417.
- Speare, A.(1975). *Residential Mobility, Migration, and Metropolitan Change*.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 Todaro, M. P.(1969).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9(1), 138-148.
- Zelinsky, W.(1971). The Hypothesis of the Mobility Transition.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61(2), 219-249.

Abstract

## Regional Migration Intentions of Young Women: Residential Mobility as a Life Strategy and the Gender Effect

Ee-Sun, Kim\*

This study approaches the residential mobility of youth between regions with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in migration intention. Residential migration of the youth is both a key issue in regional population dynamics and closely tied to their life course. Traditionally, youth migration has been analyzed in the context of the labor market, with gender differences often treated as one of several variables. This study suggests that today, young people approach residential mobility as a life strategy. Therefore, their migration intentions are shaped not only by economic and regional factors but also by subjective perceptions of their lives, future prospects, and the feasibility of those prospects. The study also posits that gender differences in the life course transition of the youth result in varying constraints and differences, which influence the factors and effects of migration intentions. Analyzing data from the "2022 Youth Life Survey", the study found that migration intentions were shaped differently depending on youth's perceptions of their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networks, and perceived constraints on future possibilities. Among these, cohabitation with parents, social support networks, and burnout experiences exhibited contrasting effects based on gender. This suggests that, for young women, the meaning of migration as a strategy to overcome current life constraints is particularly pronounced.

**Keywords :** Youth migration, Life strategy, Mobility intention,  
Mobility, Gender effect

---

\*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Sociology BK21Four, Yonsei University